



횡성한우를 만드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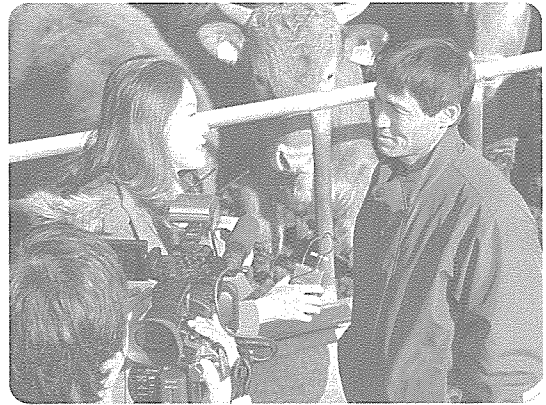
» [취재 _ 이미지]

횡성은 요즘 축제 분위기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2005년 축산물브랜드전의 경진대회에서 한우부문 대상을 차지한 '횡성한우' 덕분이다. 유난히 차가운 바람과 눈으로 고요한 겨울이었지만, 강원도 횡성에선 그 고요한 적막 아래 '횡성한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열기로 펄펄 끓고 있었다. 특히 전국에서 올라온 사양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관심 온도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횡성축협이 정의강 상무의 말을 빌리자면, 요즘 '횡성한우' 팀들은 여기저기서 쇠도하고 있는 인터뷰와 강의 요청, 그리고 노하우 전수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1,058kg 한우 출하, 동우목장 김래영 사장

횡성 축협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현재 횡성 관내엔 모두 2,131호의 농가가 2만567두의 소를 키우고 있다. 번식우는 호당 8마리, 비육우는 호당 18.6마리를 키우는 셈인데, 이들 사육농가 가운데서도 유독 돋보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우목장의 김래영(48세), 김춘자 부부. 부부는 최근 1,058kg에 이르는 한우를 출하하여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한해 출하 했던 모두 40마리의 소 가운데, 30개월을 정성들여 키웠던 이 1톤이 넘는 소는 1,200만원에 거래되었다. 도축되기 전에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던 사실을 김래영 사장은 지금까지 못내 아쉬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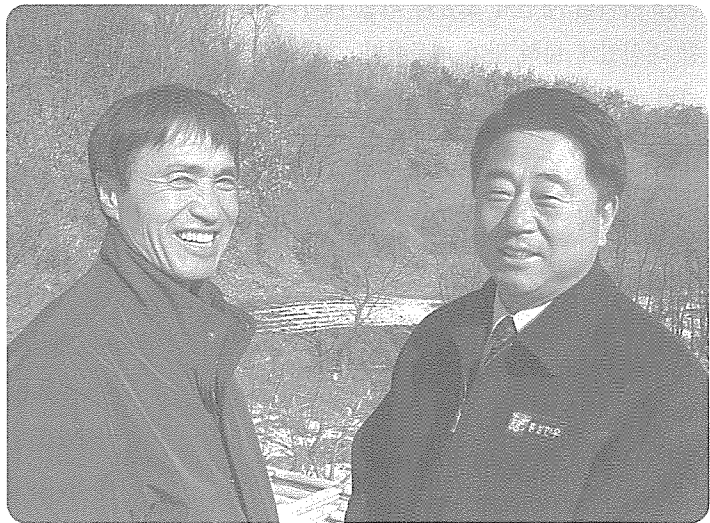


▲ 기자가 찾았던 날엔 매경TV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사장님은 인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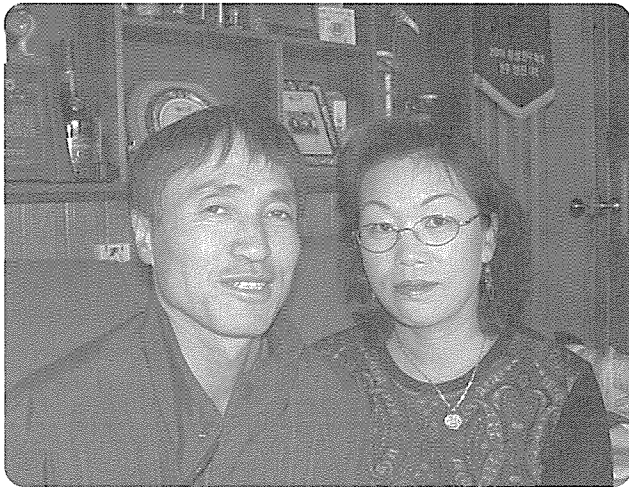
다. 하지만 그 소의 여동생, 남동생 격인 두 마리의 소가 2006년도에 출하될 예정이어서 또 한 번의 '대박 소'가 탄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형편 나아질 때마다 한 동씩 지은 우사의 역사

횡성 관내에서 출하되는 소의 평균 85%가 1등급을 보이고 있는데, 김래영 사장은 거의 90%에 가까



▲ 횡성축협 정의강 상무(오른쪽)와 함께



▲ 30년 소키우기 베테랑 - 김영래(48세), 김춘자 부부

운 소가 1등급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75년도에 한 마리의 한우를 키우기 시작하여, 어느새 260두 규모의 커다란 목장을 일군 소 키우기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그 30년의 기록은 동우목장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 목장은 크게 네 개의 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모양과 시설이 제각각이다. 한 날 한 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 한꺼번에 지은 우사가 아니라 형편이 조금씩 퍼질 때마다 하나하나를 내실있게 넓혀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사마다 각기 다른 표정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

“형편이 꼭 좋지 않았습니니다. 중학교도 중퇴할 지경이었으니까요. 남의 집 농사도 많이 지었지요. 처음 소 키울 때 초유 떼기도 무지 했습니다. 한 겨울

엔 그 초유 떼기 덕분에 하루라도 손이 성할 날이 없었죠. 갈라터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그것 이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허허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에겐 정말 힘들었던 지난날이 있었다. 녀석하지도 않은 형편에, 일찍 돌아가신 형님의 아이들까지 모두 맡아 키워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였을까. 그의 집엔 유난히 많은 표창장과 트로피가 눈에 띄었다. 착한머느리상, 효자상, 모범면민상, 그리고 농어업인대상에 한우품질회 최우수상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들이 거실 한 켠에 즐비했다. 그 상의 수만큼이나 고단했을 삶의 무게를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부는 말을 아낀다. 부인 김춘자씨 역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밥만 해줬어요.”라고 얼버무릴 따름이었다. (하지만 기자가 찾아간 날은 마침 돌아가신 형님의 기일이었고, 김춘자씨 는 어김없이 제수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횡성지역에서 나고, '횡성한우' 사료만 먹여

한우 사양의 노하우를 말하는 대목에서도 목소리는 크지 않고, 말은 짧다.

“횡성은 지리적으로 공기와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여기에 '횡성한우'의 까다로운 혈통관리와 엄선된 사료는 명품을 탄생시키는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사양 프로그램을 잘 따르고, 아무리 소 값이 떨어져도 늘 해오던 패턴대로, 두수 줄이지 않았던 것이 큰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 사료통일은 기본, 오직 '횡성한우'만 먹인다.

현재 황성한우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김래영 사장의 대답은 결국 '기본에 충실한 것' 이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황성한우'는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랄까?

“황성한우는 황성축합 사료공장에서 만드는 사료만 먹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먹이지 않지요. 각 단계별로 맞추어 꾸준히 먹이고 있습니다. 황성한우는 혈통은 물론이고, 태어나서 출하될 때까지 계속 황성 관내에서 자라야 하며, 사료도 '황성한우' 사료만 먹여 키워야 합니다. 축합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사료는 황성 밖으로는 나가지도 않아요. 황성에서만 먹이는 사료죠. 이렇게 생산된 황성한우는 모두 바코드로 이력이 추적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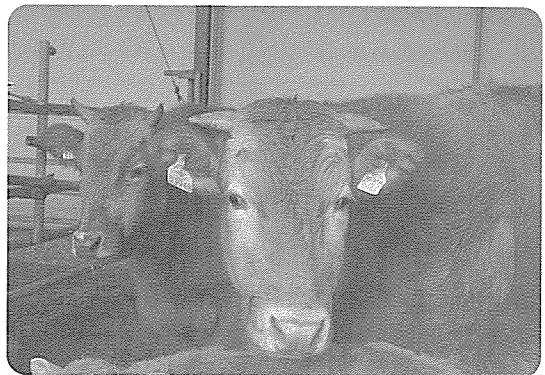
APEC 정상들의 식탁에 올라간 황성한우

그는 황성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난 11월 부산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 때도 황성한우가 식탁에 올랐다. 수많은 고기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선택된 황성한우다. 거기다 최근 축협에서 직영하고 있는 황성한우 전문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뿌듯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평일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말에는 아예 예약을 받지 않는다. 기자가 찾았던 날도 스키 철을 맞아 강원도를 찾은 수도권 일대의 손님들로 매우 분주했다. 그래서일까. 김래영 사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다지 당황하지 않는 기세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러한 호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군(郡), 축협, 한우농가 삼위일체의 결실

황성한우는 10년이 넘게 걸린 사업이었고, 무엇보다 지자체인 황성군과 황성축협, 그리고 황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사육가들이 삼위일체로 이루어낸 일심단결의 결과물이었다. 김래영 사장은 특히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황성군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소를 키우는 동안 많은 고생을 했겠지만, 그는 지금 확실히 행복한 표정이다. 그의 뒤를 따르기 위해 지금 막내아들은 축산학파에 다니고 있다. 앞으로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도, 이제 하고 싶은 건 다 했으니깐, 그저 마릿수를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500마리까지 한우를 키우는 게 꿈이다. 한 고장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30여 년간 소를 키운 사람,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걸고 나온 브랜드를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사람. 김래영 사장. 2006년에도 1톤 넘는 한우를 출하하는 기쁨이 이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때는 꼭 사진도 찍어 놓으시길!! ㉟



▲ '내가 바로 명품이라우'